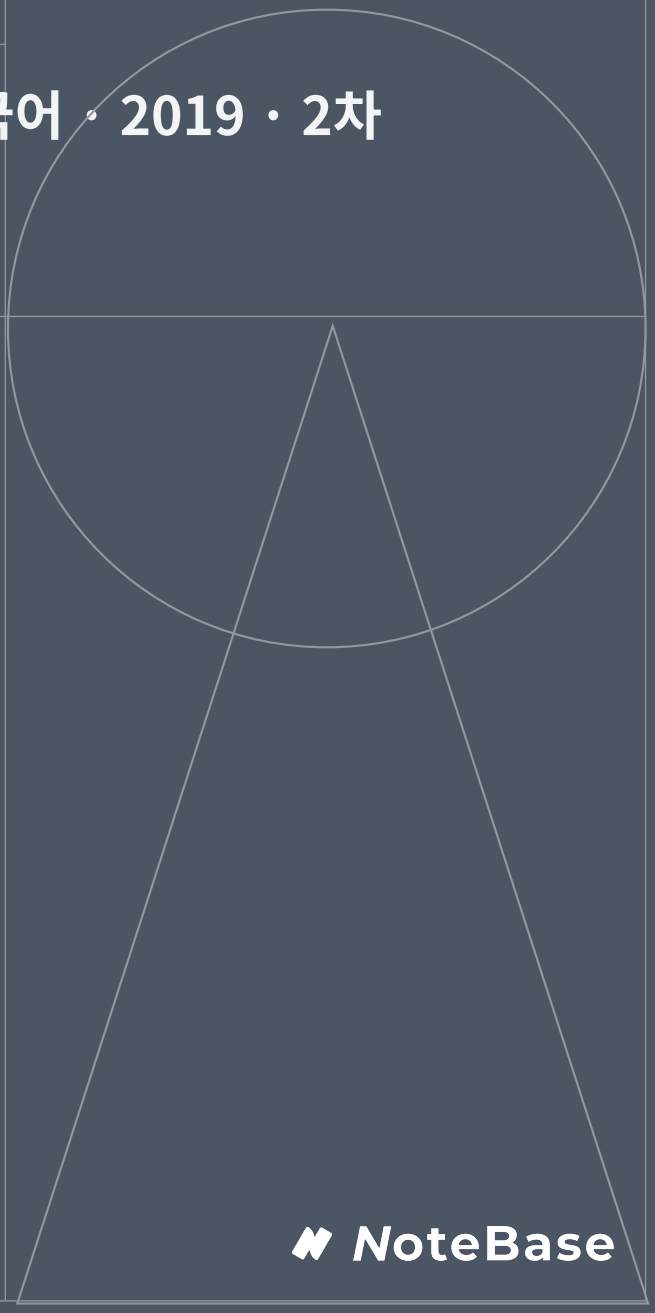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9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9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9 · 2차

문 1. 다음 밑줄 친 어휘가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내 친구는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해서 걱정이야.
② 운동을 많이 했더니 장단지가 뭉쳐서 아프네.
③ 철수는 짜장면을 즐겨 먹어.
④ 영수가 칠판에 글을 개발새발 그려놓았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주 쓰이는 구어 가운데 표준어로 인정된 말과 발음대로 잘못 적기 쉬운 비표준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정한 말이다. 실제로 널리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인지와 규범에 맞는 형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맨날', '짜장면', '개발새발'은 표준어이고, 종아리 뒤쪽의 살이 불룩한 부분은 '장딴지'라고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맨날'은 '매일같이 계속하여서'라는 뜻의 표준어이다. '만날'과 함께 쓸 수 있다.
② X — '장단지'가 비표준어이다. 종아리 뒤쪽의 살이 불룩한 부분을 이르는 표준어는 '장딴지'이므로 '운동을 많이 했더니 장딴지가 뭉쳐서 아프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짜장면'은 '자장면'과 함께 인정되는 복수 표준어이다.
④ O — '개발새발'은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괴발개발'도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다.

오답 포인트

'맨날', '짜장면', '개발새발'은 과거에는 비표준어로 여기거나 비표준어처럼 느끼기 쉬우나 현재는 표준어이다. 반대로 일상에서 흔히 들리는 '장단지'는 표준어가 아니며, '장딴지'가 올바른 형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익숙하게 들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수 표준어로 추가 인정된 형태와 소리 나는 대로 잘못 적은 형태를 나누어 본다. 신체 부위를 뜻할 때는 '장딴지'의 된소리 '딴'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맨날·짜장면·개발새발은 표준어, 장단지는 비표준어이며 올바른 말은 장딴지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지∨말라는∨데는∨가지∨말아야지∨왜∨그런∨곳에∨간∨거야?

② 너∨만큼∨나도∨그∨사람을∨보고∨싶어.

③ 그∨일을∨왜∨해야∨하는∨지를∨잘∨모르겠어.

④ 나도∨그곳에서∨보다∨이곳에서의∨생활이∨더∨좋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며, 하나의 어미는 중간을 띄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 '데'는 장소·경우·상황을 나타내며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쓴다. 조사 '만큼'과 '보다'는 체언 등에 붙여 쓰고,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는지'는 한 덩어리로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말라는 데'의 '데'는 '곳'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아야지 왜 그런 곳에 간 거야?'의 띄어쓰기가 적절하다.
② X — '너 만큼'이 잘못되었다. 여기서 '만큼'은 '너'와 비교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너만큼 나도 그 사람을 보고 싶어.'라고 써야 한다.
③ X — '하는 지'가 잘못되었다. '-는지'는 의문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라고 붙여 써야 한다.
④ X — '그곳에서 보다'가 잘못되었다.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보다'는 앞말에 붙으므로 '나도 그곳에서보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좋아.'라고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만큼'은 쓰임에 따라 의존 명사일 수도 있고 조사일 수도 있다. ②에서는 체언 '너' 뒤에서 비교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또한 ③의 '지'를 의존 명사처럼 띄기 쉽지만, 이 문장에서는 어미 '-는지'의 일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데'가 '곳·경우·상황'으로 바꾸어도 자연스러우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만큼·보다'가 앞말을 기준으로 정도나 비교를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는지'가 의문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면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의존 명사 ‘데’는 띄고, 조사 ‘만큼·보다’와 어미 ‘-는지’는 붙인다.

NoteBase

문 3. 다음 밑줄 친 외래어의 표기가 올바르게 된 것은?

① 철수는 리더쉽이 뛰어난 학생이다.

② 철수는 거의 매달 비즈니스 문제로 중국에 간다.

③ 영희는 다음 주에 있을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열심이다.

④ 민수는 생일인 영수를 위해 케잌을 준비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를 한글로 적을 때 굳어진 표준 표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의 발음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한글로 적는 규범이다. 이 문항에서는 리더십,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케이크의 표준 표기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밑줄 친 '리더쉽'이 잘못되었다. leadership의 표준 표기는 '리더십'이다.

② O
'비즈니스'는 business의 올바른 외래어 표기이다.

③ X
밑줄 친 '프리젠테이션'이 잘못되었다. presentation의 표준 표기는 '프레젠테이션'이다.

④ X
밑줄 친 '케잌'이 잘못되었다. cake의 표준 표기는 '케이크'이다.

오답 포인트

실제 발음이나 익숙한 비표준 표기에 끌리기 쉽다. 특히 '리더쉽'의 '쉽', '프리젠테이션'의 '프리', '케잌'의 받침 'ㄱ'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만 떼어 표준 표기를 대입한다. 리더십·비즈니스·프레젠테이션·케이크처럼 자주 출제되는 외래어는 음절 단위로 정확히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리더십은 '십', 프레젠테이션은 '프레', 케이크는 받침 없이 '크'로 적는다.

NoteBase

문 4.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것은 사장님의 결제(決濟)를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② 이 선수가 앞으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更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무명의 신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負傷)했습니다.

④ 저 사람이 헌법 소원(所願)을 낸 사람입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어를 문맥과 한자의 뜻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한자어는 발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맥 속 의미와 한자의 뜻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재(決裁)는 문서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일이고, 결제(決濟)는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내는 일이다. 경신(更新)은 종전 기록을 깨뜨려 새 기록을 세우는 뜻이다. 부상(浮上)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떠오르는 일이고, 부상(負傷)은 몸을 다치는 일이다. 소원(訴願)은 억울한 일을 호소하여 구제를 청하는 것이고, 소원(所願)은 바라는 바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이므로 '결제(決濟)'가 아니라 '결재(決裁)'가 알맞다. 틀린 표현 '결제(決濟)' → 올바르게는 '결재(決裁)'이다.

② O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다'는 종전 기록을 깨뜨리고 새 기록을 세운다는 뜻이므로 '경신(更新)'의 사용이 적절하다.

③ X

무명의 신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는 뜻이므로 '부상(負傷)'이 아니라 '부상(浮上)'이 알맞다. 틀린 표현 '부상(負傷)' → 올바르게는 '부상(浮上)'이다.

④ X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청하는 '헌법 소원'에는 '소원(訴願)'을 쓴다. '소원(所願)'은 바라는 바라는 뜻이다. 틀린 표현 '소원(所願)' → 올바르게는 '소원(訴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문서 승인과 대금 지급을, ③은 떠오름과 다침을, ④는 구제 청구와 바람을 같은 발음 때문에 혼동하게 만든다. 특히 한글 표기만 자연스러운지 보지 말고 괄호 안 한자가 문맥의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문장에서 뜻하는 바를 먼저 쉬운 말로 바꾼 뒤, 괄호 안 한자의 뜻과 대조한다. 승인이라면 決裁, 대금 처리라면 決濟, 떠오름이라면 浮上, 다침이라면 負傷, 구제 청구라면 訴願, 바람이라면 所願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문서는 결재(決裁), 대금은 결제(決濟), 기록은 경신(更新), 후보는 부상(浮上), 헌법은 소원(訴願)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가장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① 그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

② 철수는 근거 없는 낭설에 휘말려 곤혹스러웠다.

③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길 바란다.

④ 영희는 철수와 싸운 뒤로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미가 겹치는 표현, 문장 성분의 호응, 발음이 비슷한 부사의 구별을 바탕으로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능한 한'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는 뜻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낭설'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뜻하므로 '근거 없는'과 의미가 겹친다. 주어와 서술어는 문장 안에서 서로 호응해야 한다. '일절'은 부정이나 금지의 말과 어울려 '전혀, 절대로'라는 뜻을 나타내고, '일체'는 '모든 것' 또는 '모두'라는 뜻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능한 한'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는 뜻으로, 계획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나타낸다.
② X — '근거 없는 낭설'은 의미가 겹치는 표현이다. '낭설'에 이미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철수는 낭설에 휘말려 곤혹스러웠다.' 또는 '철수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려 곤혹스러웠다.'로 고친다.
③ X —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이라는 주어와 '바란다'라는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는 '나는 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로 고친다.
④ X — 부정 표현인 '하지 않는다'와 호응해야 하므로 '일체'가 아니라 '일절'을 써야 한다. '영희는 철수와 싸운 뒤로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다.'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일상에서 자주 쓰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겹말을, ③은 문장이 길어질 때 놓치기 쉬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④는 소리가 비슷한 '일체'와 '일절'의 의미 차이를 함정으로 삼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장에서 먼저 같은 의미가 중복되었는지 확인하고, 주어와 서술어를 직접 연결해 호응을 점검한다. 이어 부정 표현 앞에서는 '전혀'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일절'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낭설은 이미 근거 없는 소문이며, 부정·금지와 호응하는 '전혀'의 뜻은 '일절'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로 나눌 수 있다. 복합어는 다시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와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① ㉠: 아버지, ㉡: 값어치, ㉢: 덮밥

② ㉠: 바가지, ㉡: 값어치, ㉢: 마중

③ ㉠: 아버지, ㉡: 곧잘, ㉢: 마중

④ ㉠: 바가지, ㉡: 곧잘, ㉢: 덮밥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단어를 이루는 실질 형태소와 접사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여 단일어·파생어·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일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인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인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 문항에서는 아버지·바가지는 단일어, 값어치·마중은 파생어, 곧잘·덮밥은 합성어로 분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아버지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값어치는 '값'에 접미사 '-어치'가 붙은 파생어이며, 덮밥은 '덮-'과 '밥'이라는 두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의 예가 모두 알맞다.
② X — ㉠ 바가지와 ㉡ 값어치는 각각 단일어와 파생어의 예로 알맞지만, ㉢의 '마중'이 틀렸다. 마중은 '맞-'에 접미사 '-웅'이 붙은 파생어로 분석하므로, 합성어 자리에는 '덮밥'이 들어가야 한다.
③ X — ㉡의 '곧잘'과 ㉢의 '마중'이 모두 틀렸다. 곧잘은 '곧'과 '잘'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마중은 '맞-'과 접미사 '-웅'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에는 '값어치', ㉢에는 '덮밥'이 들어가야 한다.
④ X — ㉠ 바가지와 ㉢ 덮밥은 각각 단일어와 합성어의 예로 알맞지만, ㉡의 '곧잘'이 틀렸다. 곧잘은 두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파생어 자리에는 '값어치'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곧잘'과 '마중'의 분류를 서로 바꾸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곧잘은 두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이 문항의 분석에서 마중은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어를 의미의 중심인 어근과 접사로 나눈다. 어근이 하나뿐이면 단일어,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면 파생어, 어근이 둘 이상이면 합성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어근 하나는 단일어, 어근과 접사는 파생어, 어근과 어근은 합성어이다.

NoteBase

문 7. 다음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장치를 양태(modality)라고 한다. 국어에서 양태 표현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우언적 구성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추측, 가능성, 지각’ 등 ‘인식 양태’와 ‘의도, 소망, 능력, 허가, 의무’ 등 ‘행위 양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말해야 한다.’의 ‘-어야 하-’는 행위 양태이다.

② ‘사람들이 많길래 그냥 돌아왔어.’의 ‘-길래’는 인식 양태이다.

③ ‘민주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의 ‘-(으)ㄹ 수 있-’은 행위 양태이다.

④ ‘나는 내일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의 ‘-겠-’은 인식 양태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태 표현이 화자의 인식과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인지, 의무·능력·의도처럼 행위의 실현과 관련된 태도를 나타내는 행위 양태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식 양태는 명제의 사실성·가능성·근거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며 추측, 가능성, 지각 등이 이에 속한다. 행위 양태는 행위를 하려는 태도나 행위의 실현 조건을 나타내며 의도, 소망, 능력, 허가, 의무 등이 이에 속한다. 같은 ‘-겠-’도 문맥에 따라 추측을 나타내면 인식 양태, 의지를 나타내면 행위 양태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어야 하-’는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므로 행위 양태이다.
② O — ‘-길래’는 화자가 직접 지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뒤 행동의 근거로 제시하므로 지각과 관련된 인식 양태이다.
③ O — ‘-(으)ㄹ 수 있-’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므로 행위 양태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식 양태’이다. ‘나는 … 돌아가겠다’의 ‘-겠-’은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의지를 나타내므로, 올바르게는 행위 양태이다.

오답 포인트

‘-겠-’을 언제나 미래에 대한 추측으로 보면 ④를 놓치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1인칭 주어 ‘나는’과 ‘반드시’가 결합하여 돌아가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의 형태만 보지 않고 문맥에서 그 기능을 확인한다. 사실의 가능성·근거를 판단하면 인식 양태이고, 의무·능력·의도처럼 행위의 실현과 관련되면 행위 양태이다. 특히 '-겠-'은 추측인지 의지인지 주어와 문맥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추측·가능성·지각은 인식 양태, 의무·능력·의도는 행위 양태이다. 1인칭의 '-겠다'가 의지를 나타내면 행위 양태이다.

NoteBase

문 8.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주어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철수가 학자가 되었다.
㉡ 저 가게가 신발이 값이 싸다.
㉢ 할아버지도 키가 큰 편에 속하신다.
㉣ 학회에서 새로운 논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격 조사처럼 보이는 형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실제로 주어 기능을 하는 성분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 주어에는 주격 조사 '이/가'뿐 아니라 보조사 '도'가 붙을 수 있고,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에는 '에서'가 붙어 주어가 되기도 한다. 반면 '되다'나 '아니다' 앞에서 주어를 보충하는 성분은 보어이다.
㉠의 '학자가'는 '되었다'가 요구하는 보어이다. ㉡에서는 '신발이 값이 싸다'가 '저 가게가'를 서술하고, 그 안에서 '값이 싸다'가 다시 '신발이'를 서술하므로 '신발이'는 주어이다. ㉢의 '할아버지도'는 보조사 '도'가 붙은 주어이고, ㉣의 '학회에서'는 단체 명사에 '에서'가 붙어 발표 행위의 주체가 된 주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 가운데 ㉠의 '학자가'는 주어가 아니라 '되었다'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틀린 조합 '㉠㉡'은 '㉡㉢㉣'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의 '신발이'와 ㉢의 '할아버지도'는 모두 주어이지만, 발표의 주체인 ㉣의 '학회에서'도 주어이므로 빠진 ㉣을 더해야 한다. '㉡㉢'은 '㉡㉢㉣'로 고쳐야 한다.
③ X — ㉢의 '할아버지도'와 ㉣의 '학회에서'는 모두 주어이지만, ㉡의 '신발이'도 안긴 서술절에서 주어 기능을 하므로 빠진 ㉡을 더해야 한다. '㉢㉣'은 '㉡㉢㉣'로 고쳐야 한다.
④ O — ㉡의 '신발이', ㉢의 '할아버지도', ㉣의 '학회에서'가 모두 주어이고, 보어인 ㉠은 제외한 조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이/가'를 곧바로 주격 조사로 판단하거나, ㉢의 '도'와 ㉣의 '에서'는 주어에 붙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조사의 겉모양보다 해당 성분이 서술어의 주체인지, '되다'의 의미를 보충하는 성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마다 '누가 또는 무엇이 그러한가'를 묻는다. 그 답이면 주어이고, '무엇이 되다/아니다'에서 주어를 보충하면 보어이다. '도'가 붙었거나 단체 명사에 '에서'가 붙은 경우에도 실제 행위·상태의 주체라면 주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가'라고 모두 주어는 아니며, '도'와 단체 명사의 '에서'도 주어를 표시할 수 있다. '되다·아니다' 앞의 '이/가' 성분은 보어인지 먼저 확인한다.

NoteBase

문 9. ㉠, ㉡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사 '-이-', '-히-', '-리-', '-기-'는 ㉠피동사를 만들기도 하고 ㉡사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피동사로 만들어진 문장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됨을 표현하고, 사동사로 만들어진 문장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함을 표현한다.

① ㉠: 시청에 태극기가 걸렸다.

② ㉠: 눈발이 하늘 위로 날렸다.

③ ㉡: 형은 힘차게 팽이를 돌렸다.

④ ㉡: 토끼가 사자에게 다리를 물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같은 피동·사동 접사가 쓰인 파생어라도 문장에서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지에 따라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동사는 주어가 다른 대상의 행동을 입는 것을 나타내며, '누가 누구에게 동작을 당했는가'가 핵심이다. 사동사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했는가'가 핵심이다. 접사 '-이-', '-히-', '-리-', '-기-'는 피동사와 사동사를 모두 만들 수 있으므로 접사 모양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장 속 의미 관계를 살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태극기가 걸렸다'는 태극기가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 걸린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걸다'에 '-리-'가 붙은 '걸리다'는 이 문장에서 피동사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② O — '눈발이 하늘 위로 날렸다'의 '날리다'는 '날다'에 '-리-'가 붙어 눈발이 바람 등의 작용을 받아 날아다니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O — '형은 힘차게 팽이를 돌렸다'는 형이 팽이로 하여금 돌게 했다는 뜻이다. '돌다'에 '-리-'가 붙은 '돌리다'는 이 문장에서 사동사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④ X — '토끼가 사자에게 다리를 물렸다'는 토끼가 사자의 행동에 의해 다리를 물림을 당했다는 뜻이므로 '물렸다'는 피동사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 사동사의 예로 분류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 피동사의 예로 분류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리-’가 피동사와 사동사를 모두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④의 ‘사자에게’를 동작을 시키는 대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 문장에서 사자는 무는 행동을 한 주체이고 토끼는 그 행동을 당한 대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사를 먼저 기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문장의 주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어가 남의 동작을 당하면 피동이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게 하면 사동이다.

암기 포인트

동작을 당하면 피동, 동작을 시키면 사동이다. ‘-이-·-히-·-리-·-기-’는 둘 다 만들 수 있으므로 문장 관계가 결정한다.

NoteBase

문 10. 다음의 중세국어 문장 중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은?

㉠ 니ᄅᆞ샨 양ᄋᆞ로 호리이다
㉡ 므슴 차바ᄂᆞᆯ 손ᄋᆞᆫ 돋녀 ᄆᆡᆼᄀᆞ노닛가
㉢ 그디 이 은늘 날 송장애 ᄡᅳ고 남거든 그듸 가졋셔
㉣ 부텨와 즁과ᄅᆞᆯ 請ᄒᆞᄉᆞ보려 ᄒᆞ뇡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에서 종결 표현에 나타난 높임 등급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대우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높임의 하쇼셔체, 예사높임의 하야쎠체, 아주낮춤의 하라체로 나뉜다. 하쇼셔체는 선어말 어미 '-이-'가 결합한 형태가 핵심 표지이고, 하야쎠체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예사높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 '호리이다'에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가 들어 있어 하쇼셔체의 아주높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나머지 문장과 높임 등급이 다르다.
② X — ㉡은 하야쎠체의 예사높임이다. '㉡의 높임 등급이 다르다'가 아니라 ㉢·㉣과 같은 예사높임이라고 고쳐야 한다.
③ X — ㉢의 '가져셔'는 하야쎠체의 명령형으로 예사높임을 나타낸다. '㉢의 높임 등급이 다르다'가 아니라 ㉡·㉣과 같은 예사높임이라고 고쳐야 한다.
④ X — ㉣도 하야쎠체의 예사높임을 나타낸다. '㉣의 높임 등급이 다르다'가 아니라 ㉡·㉢과 같은 예사높임이라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장의 서법이 의문형·명령형·평서형으로 서로 달라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서법이 아니라 청자를 대우하는 높임 등급을 비교해야 하며, ㉡·㉢·㉣은 서법은 달라도 모두 하야쎠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종결 표현에서 상대 높임 표지를 찾는다. 선어말 어미 '-이-'가 확인되면 하쇼셔체의 아주높임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의문문·명령문·평서문이라는 서법 차이와 높임 등급을 분리하여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호리이다'의 '-이-'는 하쇼셔체 아주높임이고, ㉡·㉢·㉣은 하야쎠체 예사높임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통의 예(例)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중략]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① 원효의 해동종(海東宗)
② 세종의 훈민정음(訓民正音)
③ 조선의 고문파(古文派)
④ 신윤복의 풍속화(風俗畵)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쓴이가 말하는 '계승할 전통'과 단순한 인습·모방을 구별하고, 각 사례가 그 기준에 맞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계승할 전통은 과거에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산이다. 이러한 전통은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이 핵심이다. 반면 인습은 창조적 의미 없이 과거의 관습이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원효의 해동종은 외래 불교 사상을 주체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사상적 전통을 형성한 사례이므로 글의 기준에 맞는다.
② O —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기존의 한자 중심 문자 생활을 넘어 우리말에 맞는 새 문자를 창조한 사례이므로 글의 기준에 맞는다.
③ X — 조선의 고문파는 중국의 옛 문장과 문체를 모범으로 삼아 그것을 되살리고 따르려 했으므로, 과거의 인습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창조적 전통의 예'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과거의 형식과 권위를 답습한 인습에 가까운 예이다.
④ O — 신윤복의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을 새로운 시각과 표현으로 그려 기존 회화의 관습을 넓힌 창조적 성과이므로 글의 기준에 맞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오래된 것’이나 ‘옛것을 내세운 것’을 모두 전통으로 판단하면 ③을 놓치기 쉽다. 이 글은 과거성 자체가 아니라 인습을 타파한 창조성과 현재 문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전통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사례가 단순히 과거의 형식을 모방한 것인지, 기존 관습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현재의 창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한다. 전자이면 인습, 후자이면 글에서 말하는 전통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전통은 옛것의 반복이 아니라 인습을 깨고 현재의 창조로 이어지는 유산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의 변화는 시서화(詩書畵)의 세계마저 영상 서사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책과 종이 그리고 독서의 종말을 예단하기도 합니다.
·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추할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① 반열(班列):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
② 예단(豫斷): 미리 짐작하여 판단함
③ 호도(糊塗): 경망스럽게 떠벌림
④ 반추(反芻):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함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호도(糊塗)'의 뜻을 '경망스럽게 떠벌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반열(班列)은 품계·신분·등급의 차례나 그 위치를 뜻한다. 예단(豫斷)은 충분히 알아보기 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이다. 호도(糊塗)는 사실을 흐리거나 얼버무려 속이는 것이다. 반추(反芻)는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생각하고 음미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전의 반열에 오르다'에서 '반열'은 일정한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 또는 그 위치를 뜻하므로 설명이 옳다.
② O — '종말을 예단하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여 판단한다는 뜻이므로 설명이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경망스럽게 떠벌림'이다. '호도'는 사실을 흐리거나 얼버무려 속이는 것을 뜻하므로, '여론 호도'는 여론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진실을 흐리는 행위이다.
④ O — '영향을 반추하다'는 그 영향을 되풀이하여 생각하고 음미한다는 뜻이므로 설명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의 '경망스럽게 떠벌림'은 '호도'의 뜻이 아니다. 문장의 '사실 왜곡'과 나란히 쓰인 맥락에서도 '호도'는 사실을 흐리고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를 익숙한 어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장 속 서술 대상과 함께 확인한다. ‘사실·진실·여론을 호도하다’는 ‘사실을 흐리거나 얼버무려 속이다’로 바꾸어 뜻이 통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열은 등급의 자리, 예단은 미리 판단, 호도는 흐려 속임, 반추는 되풀이해 음미함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벼락치기의 원동력, 그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각성 효과이다. 마감이라는 스트레스가 뇌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 하부에서 신호를 보낸다. 시상 하부에서 보낸 신호는 교감 신경을 따라 부신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바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다.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질 뿐 아니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또한 뇌가 각성, 즉 깨어 있는 상태가 되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긴다. [중략]
한 중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며칠 후 출제 문항을 조금씩 변형해 재시험을 보았다. 시험을 치를 과목은 사회와 미술이고 각각 시험지에 벼락치기 여부를 표시하게 했다. 시험 결과 양쪽 모두 조금씩 점수가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벼락치기로 공부했다고 대답한 과목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과목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중략]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해마의 신경 세포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한다. 어쩌면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뇌 신경 세포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 현대인들에게 신경 질병들을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① 벼락치기로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② 벼락치기는 장기 기억에 효과적이다.

③ 이 글의 핵심어는 '스트레스, 우울증, 기억력'이다.

④ 일상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벼락치기가 단기 집중력과 장기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각성 효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집중력을 높이는 현상이다. 반면 과도하거나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해마의 신경 세포에 악영향을 주어 장기 기억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벼락치기는 당장의 정보 입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래 기억하는 데 효과적인 학습법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마감 스트레스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뇌가 각성되고 고도의 집중력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벼락치기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장기 기억에 효과적이다'이다. 재시험에서 벼락치기로 공부한 과목의 점수가 더 크게 떨어졌으므로, 올바르게는 '벼락치기는 장기 기억에 효과적이지 않다'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글의 중심 화제인 '벼락치기'를 핵심어에서 제외하고 부수적 결과인 '우울증'을 핵심어로 제시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이 글의 핵심어를 '벼락치기, 스트레스, 기억력'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이다. 글은 벼락치기라는 일상적 행동을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뇌의 각성, 해마 신경 세포의 변화로 설명하므로, 올바르게는 '일상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벼락치기가 순간적인 집중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장기 기억에도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확대하면 ②를 고르게 된다. 또한 글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우울증'을 핵심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울증은 반복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결과 중 하나일 뿐, 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화제는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가 글의 시간 범위와 인과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스트레스 → 뇌의 각성 → 단기 집중력 상승'과 '반복되는 스트레스 → 해마 손상 → 기억력 감퇴'를 나누어 판단한다. 핵심어는 일부 문장에만 등장하는 말보다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심 화제를 우선한다.

암기 포인트

벼락치기는 단기 각성에는 도움, 장기 기억에는 불리하다.

NoteBase

문 14. 다음 문장들을 이용하여 두괄식으로 한 단락을 구성한다면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다.
㉡ 독도를 당시 '우산도'라고 호칭한 것도 옛 우산국의 영토로서 본도(本島)를 '울릉도'로 호칭하게 되자 울릉도의 속도(屬島)인 독도에 '우산도'의 명칭이 옮아 붙은 것이다.
㉢ 15세기의 "세종실록"에는 울릉도를 '본도'라 하고, 독도의 당시 명칭인 우산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 울릉도의 영유 국가가 독도의 영유 국가가 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심 문장을 앞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일반적 근거와 구체적 문헌 근거, 세부 해석을 차례로 잇는 두괄식 문단의 순서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 → ㉠ → ㉢ → ㉡
1. ㉣: '울릉도의 영유 국가가 독도의 영유 국가가 된다'는 문단 전체의 중심 주장을 제시한다.
2. ㉠: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는 지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 ㉢: 『세종실록』의 '본도'와 '속도' 기록을 들어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4. ㉡: ㉢에 나온 '본도·속도' 관계를 바탕으로 '우산도'라는 명칭이 독도에 옮아 붙은 까닭을 해석한다.

왜 이 순서인가: 두괄식이므로 중심 주장인 ㉣이 먼저 와야 하며, ㉡의 명칭 해석은 ㉢이 제시한 '본도·속도' 기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부터 시작하여 중심 주장인 ㉣이 끝에 놓이므로 두괄식이 아니다. 또한 ㉡의 명칭 해석보다 그 근거가 되는 ㉢의 문헌 기록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틀린 순서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부터 시작하여 중심 주장인 ㉣이 문단 첫머리에 오지 않는다. ㉡의 '본도·속도'에 관한 해석도 이를 기록한 ㉢ 뒤에 와야 한다. 틀린 순서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구체적인 문헌 기록인 ㉢부터 시작하고 중심 주장인 ㉣을 마지막에 두었으므로 두괄식 전개가 아니다. 틀린 순서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중심 주장 ㉣을 먼저 제시한 뒤 지리적 근거 ㉠, 문헌상 근거 ㉢, 명칭에 대한 세부 해석 ㉡으로 이어지므로 두괄식 전개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도 일반적인 진술이라 첫 문장처럼 보이지만, 문단 전체를 포괄하는 결론은 ㉣이다. 또한 ㉡과 ㉢에는 모두 '본도·속도'가 나타나므로, 기록을 제시하는 ㉢이 근거이고 그 기록을 해석하는 ㉡이 후속 설명이라는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괄식 배열에서는 먼저 나머지 문장들을 포괄하는 중심 주장을 찾고, 이어서 일반적 근거에서 구체적 근거로 좁혀 간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자료·기록의 제시'가 '그 의미의 해석'보다 먼저 오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두괄식은 중심 주장부터 시작하며, 이 문단은 '영유 주장 → 부속 관계 → 문헌 기록 → 명칭 해석'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저가>·<도솔가>·<가시리> 모두 고려가요이다.

② 1910년대를 최남선과 이광수 2인 문단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③ 문학에서 개연성이란 현실 모사(模寫)를 뜻한다.

④ 1920년대에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카프' 단체가 결성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전 시가의 갈래, 1910년대 문학사의 특징, 문학의 개연성, 카프의 성격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려가요는 고려 시대에 형성되어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된 노래이며, <상저가>와 <가시리>가 이에 해당한다. 개연성은 작품 속 사건이 인물·상황·인과관계에 비추어 그럴듯하게 전개되는 성질이다. 카프는 계급주의에 바탕을 둔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 단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모두 고려가요'이다. <상저가>와 <가시리>는 고려가요이지만, 월명사의 <도솔가>는 신라 향가이므로 올바르게는 '<상저가>와 <가시리는 고려가요이고, <도솔가>는 향가이다'이다.
② O — 1910년대에는 최남선이 신문학과 신체시의 형성에, 이광수가 근대 소설의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시기를 두 사람 중심의 문단 시대라고 설명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현실 모사(模寫)'이다. 개연성은 현실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부의 인과관계에 따라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법하다고 느껴지는 그럴듯함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순수 문학'이다. 카프는 1920년대에 결성되어 계급주의·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추구한 단체이므로 올바르게는 '카프는 계급주의 문학을 추구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제목이 비슷한 고전 시가를 모두 고려가요로 묶게 하고, ③은 개연성을 사실성이나 현실 모사와 혼동하게 하며, ④는 카프의 계급주의 문학을 순수 문학으로 뒤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학사 선지는 작품의 시대·갈래, 문학 용어의 정의, 문학 단체의 지향을 각각 분리하여 확인한다. 특히 '모두', '현실 모사', '순수 문학'처럼 범위나 성격을 단정하는 표현이 실제 개념과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도솔가>는 향가, 개연성은 작품 속 그럴듯함, 카프는 계급주의 문학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밑줄 친 것 중에서 의미가 가장 다른 하나는?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어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키는지, 동화적 상상과 비유를 형성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객관적 의미는 대상의 실제 상태나 정보를 직접 나타내는 의미이다. 비유적·상상적 의미는 다른 대상에 빗대거나 사람의 성질을 부여하여 새로운 장면과 정서를 만드는 의미이다. 이 시에서 '수심(水深)'은 바다의 실제 깊이를 뜻하지만, '흰나비·청무우밭·공주'는 나비가 바다를 겪는 동화적 상상과 비유의 세계를 구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수심(水深)'은 바닷물의 깊이라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가리킨다. 나머지 시어들이 만드는 동화적·비유적 이미지와 의미 성격이 가장 다르다.
② X — '흰나비'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려갔다가 지쳐 돌아오는 존재로 그려져 의인화된 상상의 중심이 된다. '흰나비'가 가장 다르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객관적 사실을 직접 나타내는 '수심(水深)'이 가장 다르다.
③ X — '청(靑)무우밭'은 나비의 눈에 푸른 바다가 무밭처럼 보인다는 착각을 나타내는 비유적 이미지이다. '청무우밭'이 실제 장소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바다를 빗댄 표현으로 이해한다.
④ X — '공주(公主)'는 물결에 날개가 젖어 지친 나비의 모습을 공주에 견준 표현이다. '공주'가 실제 인물을 가리킨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나비의 여리고 지친 모습을 드러내는 비유로 이해한다.

오답 포인트

'수심'도 시 안에 놓인 시어이므로 모두 비유적이라고 처리하기 쉽다. 그러나 '수심'은 바다의 깊이를 직접 나타내고, '청무우밭'과 '공주'는 각각 바다와 나비를 빗대며, '흰나비'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시어가 실제 대상이나 상태를 그대로 지시하는지, 다른 대상에 빗대거나 사람의 성질을 부여하는지 확인한다. 직접적·객관적 의미와 비유적·의인화된 의미를 가르면 성격이 다른 시어를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수심은 바다의 실제 깊이, 나비·무우밭·공주는 동화적 상상과 비유의 이미지이다.

NoteBase

문 17.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빚의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빚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갚아야 할 빚만 없으면 그만이었다.
빚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글쎄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하질 않던가 말이다.
[중략]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중략]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 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① '나'가 서술되었기에 1인칭 시점이다.

② '나'는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어머니를 '노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③ '나'와 아내를 보니,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떠오른다.

④ '나'는 '빚'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한정하여 자식된 도리를 부정하려 애쓰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 시점과 호칭, 핵심 소재인 '빚', 인물 사이의 태도 차이를 근거로 '나'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인칭 시점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 글의 '나'는 어머니를 '노인'이라 부르고 어머니에게 진 빚을 경제적 빚으로 좁혀 생각하며 정서적·도덕적 부담을 외면하려 한다. 반면 아내는 '나'가 피하던 옷장 문제를 꺼내 어머니의 처지와 희생을 마주하게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직접 서술하므로 1인칭 시점이다.
② O — '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반복해서 '노인'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모자 관계를 드러내는 '어머니' 대신 객관화된 호칭을 사용하여 어머니와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태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초록은 동색'이다. 이 말은 서로 비슷한 부류나 처지의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뜻인데, '나'와 아내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같지 않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부담을 외면하지만, 아내는 '나'가 피하던 옷장 문제를 꺼내 어머니의 처지를 직면하게 한다. 올바르게는 '나'와 아내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대비된다고 해야 한다.
④ O — '나'는 어머니에게 갚을 '빚'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는 '빚'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한정하여 어머니의 희생에서 생긴 정서적·도덕적 의무, 곧 자식 된 도리를 부정하려는 자기합리화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초록은 동색'을 단순히 부부에게 적용하면 인물 관계를 잘못 읽게 된다. 부부라는 외적 관계보다 어머니의 희생을 회피하는 '나'와 그 문제를 드러내는 아내의 태도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설명 문제에서는 호칭의 변화, 반복되는 핵심어, 회피하거나 직면하는 행동을 근거로 심리와 태도를 판단한다. 속담이 제시되면 그 뜻이 인물들의 실제 태도 관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노인'은 거리 두기, '빚이 없다'는 자기합리화, 아내는 회피하던 문제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NoteBase

문 18. 위의 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두 인물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는?

정(鄭)나라의 어느 고을에 벼슬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가 있었으니,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校正)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아홉 가지 유교 경전을 부연 설명하여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오천 권이었다. 천자(天子)가 그의 절의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諸侯)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東里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하게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를 봉(封)해서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고 정표(旌表)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중략]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보기>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어미의 방에서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져서 여우 구멍이 생겼대,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대.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거야."
라고 하였다.

① 善男善女
② 女必從夫
③ 表裏不同
④ 匹夫匹婦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겉으로 내세운 명망·절개와 실제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마음 또는 실제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북곽 선생은 명망 높은 선비로 알려졌지만 과부의 방에 들어가고 위기에서는 아첨하며, 동리자는 수절한 과부로 칭송받지만 다섯 아들의 성이 모두 다르다. 두 인물 모두 사회적 평판과 실제 삶이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선남선녀(善男善女)는 착하고 어진 남녀를 뜻한다. 두 인물은 겉으로는 훌륭하다고 평가받지만 실제 행동은 그 평가와 어긋나므로, 틀린 표현은 '善男善女'이며 올바르게는 '表裏不同'이다.
② X — 여필종부(女必從夫)는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을 뜻한다. 이는 두 인물의 공통된 위선적 면모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틀린 표현은 '女必從夫'이며 올바르게는 '表裏不同'이다.
③ O —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이다. 높은 절의와 명망을 지닌 듯한 북곽 선생의 실제 행동, 수절한 현숙한 과부로 알려진 동리자의 실제 삶이 모두 겉으로 드러난 평판과 다르므로 두 인물의 특징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다.
④ X — 필부필부(匹夫匹婦)는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를 뜻한다. 이 말은 신분이나 평범함을 나타낼 뿐 겉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틀린 표현은 '匹夫匹婦'이며 올바르게는 '表裏不同'이다.

오답 포인트

'두 인물'이라는 말만 보고 남녀를 함께 가리키는 ①이나 ④를 고르면 안 된다. 핵심은 성별이나 신분이 아니라 북곽 선생의 명망과 아첨, 동리자의 수절이라는 평판과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다섯 아들의 대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평판·말과 실제 행동이 대조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체하면서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행동하면 '겉 표(表)·속 리(裏)'의 불일치인 표리부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表는 겉, 裏는 속이다. 겉과 속이 다르면 表裏不同이다.

NoteBase

문 19. 밑줄은 호랑이가 북곽 선생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鄭)나라의 어느 고을에 벼슬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가 있었으니,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校正)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아홉 가지 유교 경전을 부연 설명하여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오천 권이었다. 천자(天子)가 그의 절의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諸侯)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東里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하게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를 봉(封)해서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고 정표(旌表)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중략]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①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일종의 말장난이다.
② '언어유희, Pun'이라고 한다.
③ 견강부회(牽強附會)하는 북곽을 꾸짖는 말이다.
④ "유(諛)"의 뜻이 위의 글에 제시되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儒)'와 '유(諛)'의 소리가 같은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와 그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이다. '유(儒)'는 유학자·선비를, '유(諛)'는 아첨함을 뜻하며, 호랑이는 두 말의 같은 소리를 이용해 북곽 선생의 위선과 아첨을 풍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유(儒)'와 '유(諛)'는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르므로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에 해당한다.
② O — 같은 소리를 지닌 서로 다른 말의 의미를 겹쳐 웃음이나 풍자를 만드는 표현은 언어유희, 즉 pun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견강부회하는 북곽을 꾸짖는 말'이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행위인데, 밑줄은 북곽이 위급한 상황에서 호랑이에게 아첨하는 태도를 꾸짖는 말이다. 올바르게는 '아첨하는 북곽의 위선적 태도를 꾸짖는 말'이다.
④ O — 밑줄 뒤의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라는 구절이 '유(諛)'의 뜻이 아첨임을 직접 밝혀 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뒤에 나오는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라는 표현 때문에 견강부회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밑줄의 직접적인 초점은 '유(諛)'와 이어지는 북곽의 아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가 다르지만 음이 같은 말이 나란히 제시되면 먼저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밑줄 직후의 풀이 표현을 찾아 밑줄이 실제로 비판하는 태도를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儒는 선비, 諛는 아첨이며, '유(儒)는 유(諛)'는 같은 소리를 이용해 아첨하는 선비를 풍자한 말이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고전시가 작품의 일부분이다. 현대역 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돌하 노피곰 도ᄃᆞ샤 →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②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 →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③ 시절이 하 수상ᄒᆞ니 → 시절이 너무 수상하니

④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한중진미를 알 리 없이 혼자로구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전 시가에 쓰인 고어의 뜻과 문법 형태를 문맥에 맞게 현대어로 옮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어를 현대어로 풀이할 때에는 현대어와 모양이 비슷한 말로 바꾸지 않고, 당시의 어휘 뜻과 문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알 니'의 '니'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 '이'가 관형사형 '알' 뒤에서 '니'로 적힌 것이므로 '알 니'는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노피곰'은 '높이높이', '도드샤'는 '돋으시어'라는 뜻이므로 현대역이 적절하다.
② O — '곶'은 '꽃', '여름'은 '열매'를 뜻하고, 여기서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는 현대역이 적절하다.
③ O — 여기서 '하'는 정도가 매우 큼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시절이 너무 수상하니'라는 현대역이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알 리 없이'이다. 원문의 '알 니 업시'에서 '니'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올바르게는 '한중진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라고 옮겨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니'를 현대어의 '리'로 잘못 읽으면 '알 리 없이'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원문의 '니'는 가능성이나 까닭을 나타내는 '리'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의존 명사이므로 번역의 주체가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어와 현대역을 낱말별로 대응한 뒤, 같은 형태라도 현대어와 뜻이 달라진 어휘가 있는지 확인한다. '알 니'처럼 관형어 뒤에 사람이 놓이는 구조이면 '알아주는 사람'으로 풀이한다.

암기 포인트

'곶'은 꽃, '여름'은 열매, '하'는 매우, '알 니'는 알아주는 사람이다.

NoteBase